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

## 퇴직연금

- 동향 : 2012 OECD 연금 전망
- 이슈 : 고령자 소비자의 피해 실태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5월말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대 기록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FTA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5% 증가한 71.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며 일본의 對韓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95.9% 증가한 23.4억 달러를 기록
  - FTA 효과: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로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며 외국인투자가 증가
-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약화 등의 대외 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금융 동향: 유럽,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로 금융시장 소폭 상승

- 유럽과 중국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6월 22일 3.31%에서 7월 6일 현재 3.23%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도 6월 22일 1,158.5원에서 7월 6일 현재 1,138.5원으로 20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공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월 22일 1,847.4에서 7월 9일 1,858.2로 10.8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6월22일	7월6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6.2	3.6	4.2	3.4	3.4	3.4	2.8	-
	산업생산(%)	16.2	7.0	10.6	7.2	5.3	5.3	4.2	2.7
	소비자물가(%)	2.9	4.0	4.5	4.2	4.8	4.2	3.0	2.5
	실업률(%)	3.7	3.4	4.2	3.4	3.1	3.0	3.8	3.1
	경상수지(억달러)	282.1	276.5	26.1	54.9	69.0	126.7	26.3	36.1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72	3.62	3.80	3.68	3.60	3.41	3.47	3.31
	원/달러(원)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40.5	1,158.5
	코스피지수(P)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72.6	1,847.4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6월22일은 5월, 7월 6일자는 6월 수치임.

## □ 경제 이슈: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

### - 인구 5,000만 시대와 인구보너스 소멸

#### ■ 20-50클럽 가입

한국은 6월 23일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1인당 GDP 20,000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 인구 5,000만 돌파와 인구보너스 소멸

**(인구보너스의 향유 : 1966~2012)** 1966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향유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4.9%(1970)에서 68.6%(1989)로 급등하면서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9.3%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구보너스 소멸 : 2013년~)**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1.1%에서 57.0%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 세대가 현재의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급락할 때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는 있다.

#### ■ 인구보너스 2.0 시대의 준비 과제

**(인구보너스 2.0 시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는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 과제)** 첫째,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문제와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둘째, 외국 인력과 북한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장려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생산가능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하되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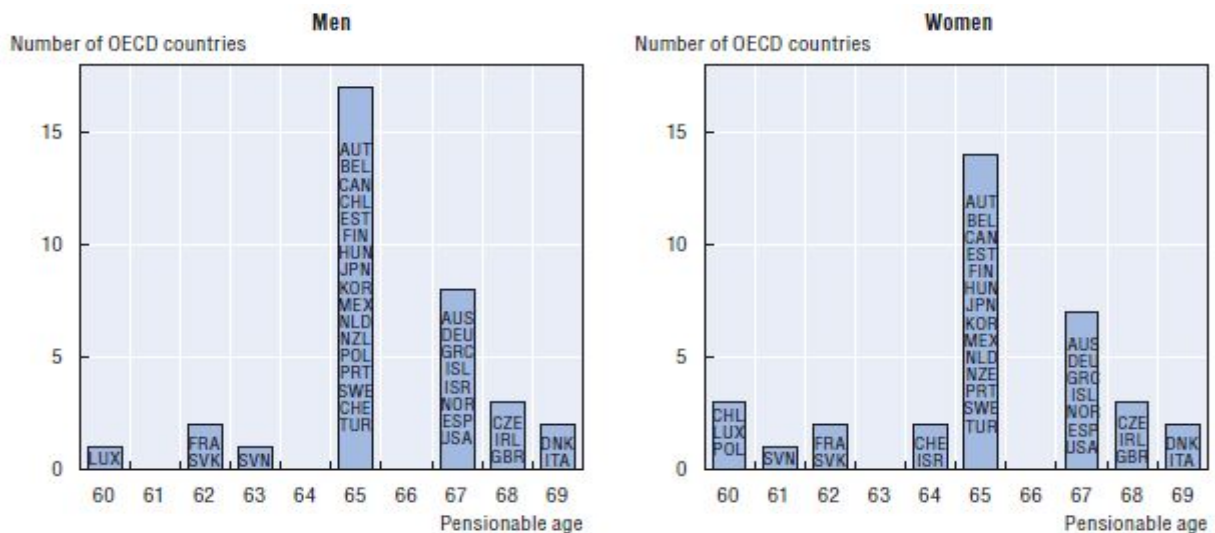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02-2072-6219, sododuk1@hri.co.kr)

□ 동향: 2012 OECD 연금 전망 요약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요약)

○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

- 향후 50년 동안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7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잦은 경제 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은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65세 혹은 67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덴마크와 이태리는 69세로 상향조정하였음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후 상향조정될 연금수급연령>



\* [자동조정장치]

- 인구학적 변화 및 경제적 변화를 연금제도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조정 장치로서, 인구·경제학적 변화를 연금 수급연령 혹은 급여수준의 삭감에 연계시키는 장치임
-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수급연령에 연계한 국가는 덴마크, 이태리 등이 있으며, 급여수준의 직접 삭감에 연계한 국가는 스웨덴, 폴란드 등이 있음
- OECD(2012)에 의하면, 이러한 공적연금 개혁은 향후 연금급여 수준을 약 20~25%까지 감소시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 OECD 13개국의 경우 공·사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약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OECD는 이러한 연금격차(노후빈곤)를 줄이기 위하여 사적연금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함

- OECD(2012)는 이러한 사적연금 확대 방안으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함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는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OECD(2012)에서 언급하듯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체계화를 통하여 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직 미성숙단계이므로 연금제도가 이미 발전된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확대·강화 정책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이슈: 고령 소비자의 피해 실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소비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고령자들은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소비자행동,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취약하게 된다. 즉, 새로운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령자가 사용하게 적합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소비환경이 고령소비자들에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시설의 부족으로 소비자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의 대응에도 미숙하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익숙하지 못하고,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한 사기적인 상술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자의 외로움, 고독감을 이용하는 사기적인 판매는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령소비자문제이기도 하다.

고령소비자 피해는 주로 고령자 대상의 사기적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노인용품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상조회, 실버타운 등의 노인이용시설, 실버보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1년 65세 이상의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69.4%가 공짜여행이나 무료공연 관람 후 상품을 강매 당하거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등 각종 사기적인 상술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 고령소비자의 경우 사기적인 상술로 인한 피해경험은 **71.8%**로 가족동거 고령소비자의 피해경험 **66.9%**에 비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혼자 사는 고령소비자가 특히 소비자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소비자의 거래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제 개선이 필요한데 청약철회권의 보장 강화 외 소비자 취소권 도입 등 고령자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상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고령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특히 요양시설, 의료용구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상품,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비교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I. 취약한 고령자의 소비생활

###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 최근 영국의 한 금융기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서 앞으로 고령소비자문제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고령자들은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됨
  - 고령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소비자피해에도 경제적 타격이 큰 편임
  - 노인가정의 지출 항목은 주거 관련비용이 43.0%로 가장 많고 보건의료비(24.7%), 식비(12.0%) 등의 순임(2011 년도 노인실태조사결과, 보건복지부)
- 한편 고령 소비자의 특성은 소비자행동에도 반영되어 소비생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취약하게 됨
  -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며 특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됨
  - 고령자가 사용하게 적합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소비환경이 고령소비자들에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 소비자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의 대응에도 미숙함
  - 새로운 거래방식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기적인 상술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고령자의 외로움, 고독감을 이용하는 사기적인 판매는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령소비자문제임

## II. 고령소비자의 주요 소비자 피해

### ○ 고령소비자 중 66.9%가 소비피해 경험

- 고령소비자 피해는 주로 고령자 대상의 사기적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많으며,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노인용품이 주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상조회, 실버타운 등의 노인이용시설, 실버보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룸

- 65 세 이상의 고령소비자 중 69.4%가 공짜여행이나 무료공연 관람 후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등 각종 사기적인 상술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소비자연맹 2011 년 조사결과)
- 특히 혼자 사는 독거 고령소비자의 경우 사기적인 상술로 인한 피해경험은 71.8%로 가족동거 고령소비자의 피해경험 66.9%에 비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혼자 사는 고령소비자가 특히 소비자피해에 취약할 것으로 보임
  - 노인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독거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로,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 비율은 급감함(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공짜”, “무료”상술에 당하는 고령소비자

- 고령자들의 고독감을 이용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적인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많음
-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
  - 휴지나 세제 등의 생필품을 무료로 유인한 후 상품 구입 강요
  - 무료관광, 공장견학 후의 상품구매 강요
  - 공연, 강연회, 의료기기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 뒤 상품 강매
  - 우체국, 은행직원, 공무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 건강식품류 피해 많고, 피해 배상에도 소극적

- 강매를 당하는 상품은 건강식품류가 40.9%로 가장 많았고, 금액(최근 3년 기준)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25.6%로 가장 많았는데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피해경험자의 18%에 이르러 많은 고령소비자들이 소득이나 용돈에 비해 고액의 피해를 경험하였음
- 문제는 피해를 당하고도 78.5%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 번거롭고 귀찮은데다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원하지 않아서 이기도 함
- 또한 소비자문제 발생시의 피해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독거 고령소비자 정보력 부재로 소비생활에 어려움 가중

- 특히 이러한 추세는 독거 고령소비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독거 고령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구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독거 고령소비자들 중에는 가족과 동거하는 고령자의 경우에 비해 상품의 사용방법이나 사용 중 문제발생시의 해결방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상품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클 뿐 아니라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논대상이 없거나 소비 전반에서의 정보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가구유형별 상품 구매 시의 어려움

구분	가족 동거유형				전체	단위: 빈도, (비율) $\chi^2$ 검정(p 값)
	독거 고령	부부동거	자녀동거	손자동거등 기타		
상품 정보부족	294 (55.1)	145 (27.2)	82 (15.4)	13 (2.5)	534 (100.0)	34.28***(0.005)
구입방법 어려움	81 (59.6)	27 (19.9)	25 (18.4)	3 (2.2)	136 (100.0)	
판매원의 불편한 태도(강요행위 등)	35 (40.7)	27 (31.4)	22 (25.6)	2 (2.3)	86 (100.0)	
사용 및 수리 불편	86 (47.3)	46 (25.3)	41 (22.5)	9 (4.9)	182 (100.0)	
기타	26 (32.9)	27 (34.2)	21 (26.6)	5 (6.3)	79 (100.0)	
전체	522 (51.3)	272 (26.7)	191 (18.8)	32 (3.2)	1,017 (100.0)	

\* p<.1, \*\* p<.05, \*\*\* p<.01

## Ⅱ. 고령소비자의 주요 소비자 피해

### ○ 사기적인 상술로 인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필요

- 고령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적인 판매행위나 상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피해를 유발한 경우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령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보호방안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고령소비자를 위한 법, 제도의 마련, 기만적인 상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임

표 2) 고령소비자 보호방안

보호 방법	비율
노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40.4
기만적인 상술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17.2
노인을 위한 별도의 피해구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20.7
언론의 노인생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한다	6.1
상품정보, 계약서 등의 글씨크기 확대 등이 필요하다	5.7
노인용품 전문점을 확충해야한다	4.9
기타	5.0
합계	100

### ○ 고령소비자 보호 정책 필요

- 고령소비자의 거래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제 개선이 필요함.
  - 청약철회권의 보장 강화 외 소비자 취소권 도입 등 고령자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상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함.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특히 요양시설, 의료용구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상품,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비교정보 제공이 강화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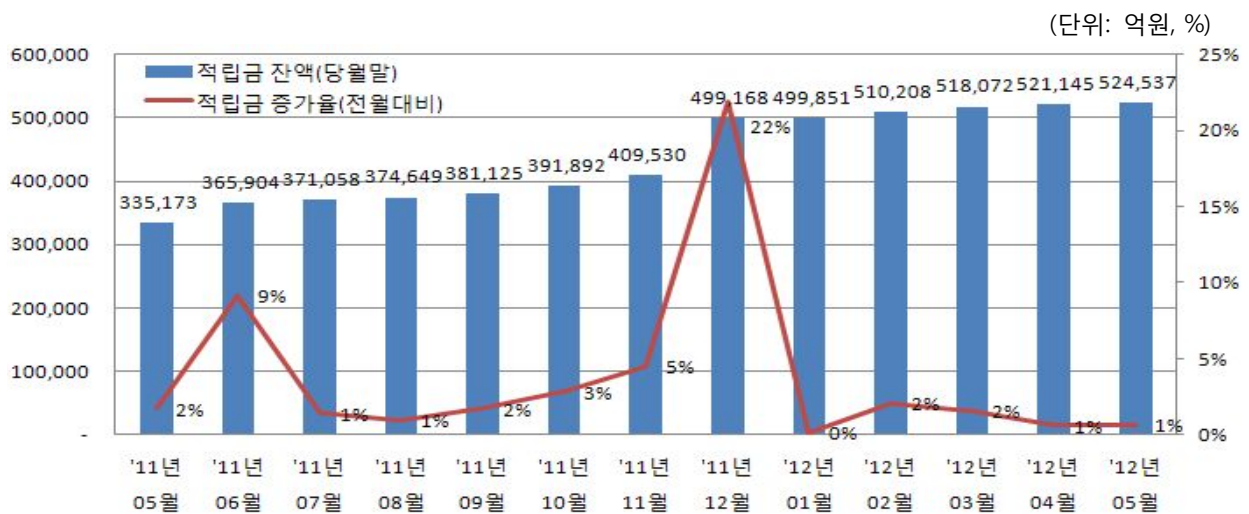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02-795-1995, consumer1@hanmail.net)

□ 퇴직연금통계 (2012년 5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5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2 조 4,537 억원으로 전월말 (52 조 1,145 억원) 대비 0.7% (3,392 억원) 증가
- 퇴직연금 정기납입분 및 퇴직급여 지급액은 분기 및 연말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평월의 증가세는 낮은 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9.3%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1,616 개소로 전월말(157,268 개소) 대비 2.8%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5,882	41,969	17,346	4,687	733	999	161,61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5	25.1	34.7	45.5	53.8	89.2	10.7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팔로워십(Followship)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팔로워십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팔로워십이란 '제대로 따르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능력이 리더십이라면, 리더를 도와 리더십을 완성하는 것은 다름아닌 팔로워십인 것이다. **좋은 부하가 훌륭한 상사를 만든다.**

일등만이 살 길이라고 하여 누구나 리더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다.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될 수는 없다. 플루트 연주자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더 중요한 덕목은 팔로워십인지 모른다. 훌륭한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추종자들의 안목, 주어진 리더가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팔로워십이다. **진정한 팔로워십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훌륭한 리더도 될 수 있다.**

팔로워십에 대해 명심할 것 세 가지. **첫째, 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리더를 이해해야 한다.** 리더와 부하는 상하계급이 아니라 역할 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더를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분명한 대안을 겸손하게 제시해야 한다.** 예스맨이 되어선 안 되며, 창조적인 비판력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겸손하게 표명하는 것은 예의이다. 리더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스런 요소만을 찾고 비난하게 되면 자신의 발전도 없다. 불평 불만은 리더는 물론 자신의 신뢰와 명예도 함께 잠식시킬 뿐이다.

**셋째, 조직 목표와 내 목표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전체 이익과 내 이익이 따로일 때 나의 노력과 열정은 분산되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없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BC 384~322) : 고대 희랍의 철학자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